

전남도, 해외판매장 9곳 추가...수출위기 극복

1월 농수산물 수출 9.7% 감소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집중

기업 역량 강화...판로 확대

전남도가 해외 상설판매장 확대 등을 통해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위기를

극복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세계 경제의 급격한 침체 속에 지난 1월 전남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7% 감소한 3,964만7,000달러에 그쳤다.

이는 배·파프리카·고추 등 신선 농산물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비관세장벽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김 등 수산물 수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수출 관계자 간담회를 (재)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수출 기업의 역량 강화와 도내 농수특산품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제품 발굴, 해외 상설 판매장 확대 개설

등을 협의했다.

우선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식품기업 육성을 위해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해외 식품 유통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한 수출 기업 역량 강화 사업을 식품수출협회와 함께 추진기로 했다.

일본·미국·중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수출 비중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 온·오프라인 상설 판매장을 운영하는 8개 수출 전문기업과 함께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는 그 일환으로 신규 해외 상설 판매장 9곳을 추가로 개설기로 목표를 정했다.

또 2025년 농수산물 수출 10억 달

리 달성을 위한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 경진대회’를 개최해 수출 우수 시군을 표창하고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수출 지원사업의 효과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연말까지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만, 전남은 현재 전 세계 9개 국가에 상설 판매장 21곳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지역 농수산물 수출의 안정적 수출 판로가 되고 있다”며 “상설 판매장이 없는 도시와 국가를 위주로 9곳을 추가로 개설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내일부터 도시철도 조선대사거리 횡단공사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5일 “오는 7일부터 조선대사거리 횡단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조선대학교 치대병원 앞 구간과 조선대 공과대학 앞 구간을 잇는 교차로 횡단공사로, 5월 31일까지 2

단계에 걸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필요한 가시설 설치작업 및 복공판을 설치한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조선대사거리 공사 중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차량유도 안내

표지판,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조선대 정문 주변은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구간 진입 전 인근 교차로 등에 공사안내 현수막을 게시한다.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공사구간을 안내하고 교통방송 안내를 통해 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길용현 기자

강성훈 북구의원, ‘문학상 운영 조례’ 추진

광주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이 광주지역 최초로 문학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5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강 의원은 6일 개최하는 제284회 임시회에 ‘광주시 북구 무등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상 및 시상금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심사위원의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강 의원은 북구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예술 창달을 도모하기 위해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18년만에 광주 문학관이 각화동에 개관할 예정인 만큼 문학 활성화를 위한 창작기반 구축과 광주 문학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강 의원은 “북구에서도 문학인들의 성장과 주민들의 자유로운 문화 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 발굴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세계한인체육 총연합회 전남도 방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3일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 정주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오는 10월 목포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해외동포선수단 참가 관련 지원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남도 제공

‘양성 평등 전남실현’ 1,162억 투입

경력단절 이음 바우처 등

올해 49개 과제 중점 추진

전남도가 올해 ‘성 평등한 전남 실현’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경력 이음 바우처 등 양성평등 정책 49개 과제에 1,162억원을 투입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문금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남도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위원회에선 ▲2023년 전남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2022년 양성평등 기금 결산 ▲2023년 전남도 양

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은 여성가족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기초해 49개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경력단절 여성 경력 이음 바우처, 경력채용 인턴십 지원, 가족친화 인증 확대 등이다.

양성평등 기금 결산 심의는 지난해 1년간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 운영된 양성평등 기금에 대해 이뤄졌다.

양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난 1월 27일까지 공모해 접수한 28개 사업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기금 사용 목적, 지원 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자부담 능력 등을 검토해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문금주 부지사는 “올해는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양성기금 사업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성평등 지수를 높이고 특정 성이 차별받지 않는 성 평등한 전남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도, 올해 ‘농촌서 살아가기’ 전국 첫 운영

보성 다향울림촌서 시작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전남도는 5일 “‘2023 농촌에서 살아가기’ 참가자 모집을 마친 보성 다향울림촌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도가 추진한 ‘전남에서 먼저 살아가기’를 농림축산식품부가 번치마강해 2021년 신규 도입한 사업이다. 도시민이 농촌에 살아가면서 농촌 문화를 이해하고 주민과 상호 소통하며 귀농·귀촌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

전국 9개 광역시·도 114개 시·군 130개 마을에서 500여 가구 모집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참가자 모집을 마친 보성 다향울림촌에는 지난 2일부터 10명의 도시민 참가자들이 본격적인 체험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연수비를 개인당 월 30만원,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해 참가자가 농촌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각종 체험과 영농교육 등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자 만족도를 최대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농촌인력중계센터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함께 운용해 단

순 체험이 아닌 농촌에서 일하면서 스스로 자립하는 기회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시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정책조정관장은 “참가자가 일자리를 포함해 농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를 습득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귀농산어촌 전남을 만들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 전남에서 살아가기 사업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참가한 도시민은 총 2,154명으로 이중 327명이 실제 전남으로 주소를 이전해 살고 있다. /정근산 기자

광주형 메세나운동 ‘문화 동행’ 추진

광주시는 5일 “문화기부 확산과 지역 예술인 육성 및 자생력 강화 기반구축을 위한 광주형 문화메세나 ‘문화동행’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동행’은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 기업의 기부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 문화동행 ▲기업 문화동행 ▲함께 문화동행 등 3개 분야로 추진한다.

시민 문화동행은 민간후원금과 시비를 1대 1로 확보해 신진 예술인과 전문

(중견) 예술인에게 지원한다. 예술활동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진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부금과 매칭금을 포함한 2억 6,000만원을 확보해 1인당(단체당)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전문 예술인을 대상으로는 5억2,000만원을 확보해 1인당(단체당)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시비를 지원해 전년 대비 더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문화동행에서는 기업후원금 1

억원과 매칭금 1억원을 합산해 총 2억원을 예술인에게 지원한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걸맞은 공공 문화예술 특성화 프로젝트를 함께할 예술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연계해 매력적인 문화예술 상품을 설계하고, 8월에는 투자유치설명회(IR데이) 등을 개최해 기업 후원자를 적극 모집할 계획이다.

함께 문화동행은 소액 정기 기부자를 지속 발굴하기 위한 사회적 운동이다. 기부약정서를 작성하면 월 1,000원에서 1만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약정일에 자동이체 신청할 수 있다. /길용현 기자

www.goldclass.co.kr

단, 현재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주) · 골드디움(주) · 골드종합건설(주) · 보광건설(주) · 보광종합건설(주)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 (화정동) 골드클래스 ■ 문 의 : 062) 233-3999